

# 여 “묻지마 삭감”...야 “특활비 낭비”

###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가동

### 법사·국방위 등 감액 심사 착수

### 여야 입장차...기일 지켜질지 주목

국회가 13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했고, 예결위 조정소위는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를 시작으로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상임위별 감액 심사에 이어 증액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가 시작된 이날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이에 12월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

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예산 총지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등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기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방침에 대해서 “묻지마식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공방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당장 불필요한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혈세 낭비를 막겠다”면서도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을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상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나눠 먹기 등 부적절 사용 사과 및 처벌 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 개선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R&D 및 기후 위기 대응, 지역 및 민생 예산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R&D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예산의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여야 총선 5개월앞 인재영입 불 붙었다

### 위원회 구성하고 영입 작업 본격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새로운 피’ 수혈을 위한 인재 영입 작업을 본격화 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3일 1차 위원 선정을 마치고 총선을 앞둔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외부 인사 4명 등 인재영입위원회 5명의 인선안을 의결했다.

외부 인사로는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이자 내과의사인 박은식씨,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뒤 장애를 극복하고 보디빌더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나운씨가 합류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정장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 당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바 있다.

30대 워킹맘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번호 사 모인’ 상임대표인 송지은씨, 입법부·행정부 경험에 있는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도 위원으로 잠

여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발굴을 담당할 인재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인재 영입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인재 영입 실무를 담당할 인재위 간사에는 재선의 김성한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작업을 담당했다.

일부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에 직접 전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인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령, 성별, 경력 불문 평범한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 풀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재위는 경제·산업, 과학·기술(IT, AI, 우주항공), 기후·환경·에너지, 민생,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국방, 노동·일자, 보건·복지(장애인·인권), 체육·문화·예술, 동물 복지, 지역 등 11개 분야에 걸쳐 추천장을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소장 인사청문회...野 “尹 또 친분 인사”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끝났다고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을 추궁하는 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 상가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가각을 결정할 때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브리핑

# 민주 “尹정부 언론 장악 시나리오 가동”...외신 보도 인용 공세

### KBS 사장 임명 강행 비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고 해놓고서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이제 그만 해야 한다”며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할지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송 3법은 공영 방송이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현 정부의 언론 정책 비난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도 뉴욕타임스 기사를 언급하며 “(보도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한 대목도 언급했다”며 “외신이 본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 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KBS 박민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제기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동관 탄핵안”으로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보란 듯이 위법한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민형배·고민정·허숙정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이 박 사장을 임명한 것은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도 방송 장악 야욕을 포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권을 유지하려고 공영방송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안도걸 34년 행정경험 담은 자서전 출판기념회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안도걸의 삶과 도전’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에는 안 이사장의 성장기와 행정고시 합격 과정, 34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등을 담았다.

안 이사장은 ‘나라 살림 지킴이에서 미래 경제 일꾼으로’라는 부제가 달린 자서전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았음에도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고,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정보화시대 선도국가를 이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적 사표로 생각한다”며 “34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국정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고향 광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정국에서 호남 출신 중 16년 만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12년만의 차관으로 전무후무하게 10번이나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제 증가율을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가장 빨리 고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탁월한 재정 운용 능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또 공직생활을 마친 뒤 고향 광주에 내려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광범위한 국가 정책과 국제 프로젝트 관리 역량, 650조원의 나라살림 편성 경험 등을 살려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방안과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